

"복 하나 뽑아 바암"...평창군, 강원도 방언 이벤트

등록 2025.02.07 11:37:42



푸른 뱀의 해 정월대보름 맞이 '복 하나 뽑아 바암' 특별 이벤트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스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푸른 뱀의 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대화면

소재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에서 '복 하나 뽑아 바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바암'은 강원도 방언으로 뱀을 뜻한다.

이번 이벤트는 관람권 구매 전 추억의 종이 뽑기를 통해 1등 관람료 무료, 2등 관람료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모든 참여자에게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강원도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바암'이라는 단어를 이벤트 핵심 요소로 등장시켜 지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순철 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벤트는 지역 방언의 특수성을 활용해 평창의 매력을 알리고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추운 날씨에도 광천선굴을 찾아준 방문객들에게 유쾌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천선굴 겨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